

경기도의회 독도 수호 의식 일깨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 사진전' 열어

25일 제124주년을 맞이한 '독도의 날'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의원(안양1), 김태형·김철진·서현욱 의원 등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원들과 경기도민, 관계 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독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는 김성수(안양1) 의원과 서현욱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하하고 부정하고자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된 '죽도자료공부회'를 조직해 연구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 스스로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으로 지난 1877년 3월29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 왜곡의 상징인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와 방위 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과 역사교과서 상에 수록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진정 반성의 자세로 역사왜곡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주권 의식을 높이고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며 독도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

21일부터 30일까지를 '독도' 주간으로 명명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사진 전시와 영상 상영을 주관해 경기도민 모두가 독도 수호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현장 찾아 격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연수구협의회 주관으로 연수아트홀에서 개최한 '제3회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경연대회를 축하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수구 지역 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합창·국악·K팝·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 학부모·주민 등 관람객으로부터

더 큰 호응을 받는 등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앞으로 꿈을 이뤄 나가는 데도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열 기자

공공기관 직원 인력·예산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4일 소속 공공기관 노조 위원장을 초청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국민의힘, 성남8) 위원장과 전석훈(민주당,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인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공공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부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각 공공기관 노조 위원장은 기관별 현황 및 문제점,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며 법·제도적 한계를 의뢰, 고양11)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인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

김인창 기자

지역 의료체계 구축 필수인력 확충안 모색

인천시의회 공공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개선 세미나 진행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지난 23일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2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과거 1차 토론회 당시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의료체계 필수인력 확충의 어렵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번 2차 세미나 주제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정책, 인천시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에는 장성숙 인천시의원이, 패널로는 김명주·나상길·신영희·이선욱·임지훈 인천시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박미자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팀장, 남승근 인천대 교수,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필수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갑 발제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의 국정과제 66번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어디서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정으로 명시했고 특히 추진방향에서 필수 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불

합리·불균형한 수가 정상화나 보완형 공공정책수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건비와 불균형한 수당 등 수도권 병원과 근무환경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많은 필수인력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전 인천시의와 협력으로 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의대설립 후 자체 대학병원 개원 및 증축을 통해 필수인력 확충과 지역 학교 간의 메디컬 캠퍼스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중심 병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로 의료원이 힘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필수의료혁신계획으로 20조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국립대병원의 부채, 공공병원 5% 등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욱 인천시의회 제1부장은 "내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중 서울에 위치한 의과대학 증원은 0명, 지방 국립대 의대 및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증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시도 공공의료 관련 인천대학교에서도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장열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예산직무역량 강화

사례·청렴교육 진행

경기도의회는 25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청렴성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을 초빙해 '예산안 검토 사례와 심사주안점'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예산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사례교육 △ 예산안 검토 및 심사 기법 △ 질의응

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방예산 심의에 실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이번 교육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례위주의 예산안 검토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예산분석의 핵심포인트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경기도교육청 23조 규모 예산 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본예산 설명회

지난 7월 새로 구성된 제1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약 23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첫 예산 심의를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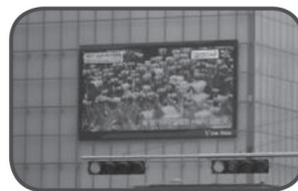
두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기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경비의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청과 시·

군의 부담비를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차질없이 제공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명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